

한국형 ISA (IWA) 도입 필요성과 방향

2015. 3. 30

선임연구위원 김재철
[공동연구자: 연구위원 홍원구, 연구위원 천창민]



목 차

1

개요

2

필요성

3

해외 주요국 도입 경험의 시사점

4

바람직한 방향

KCMI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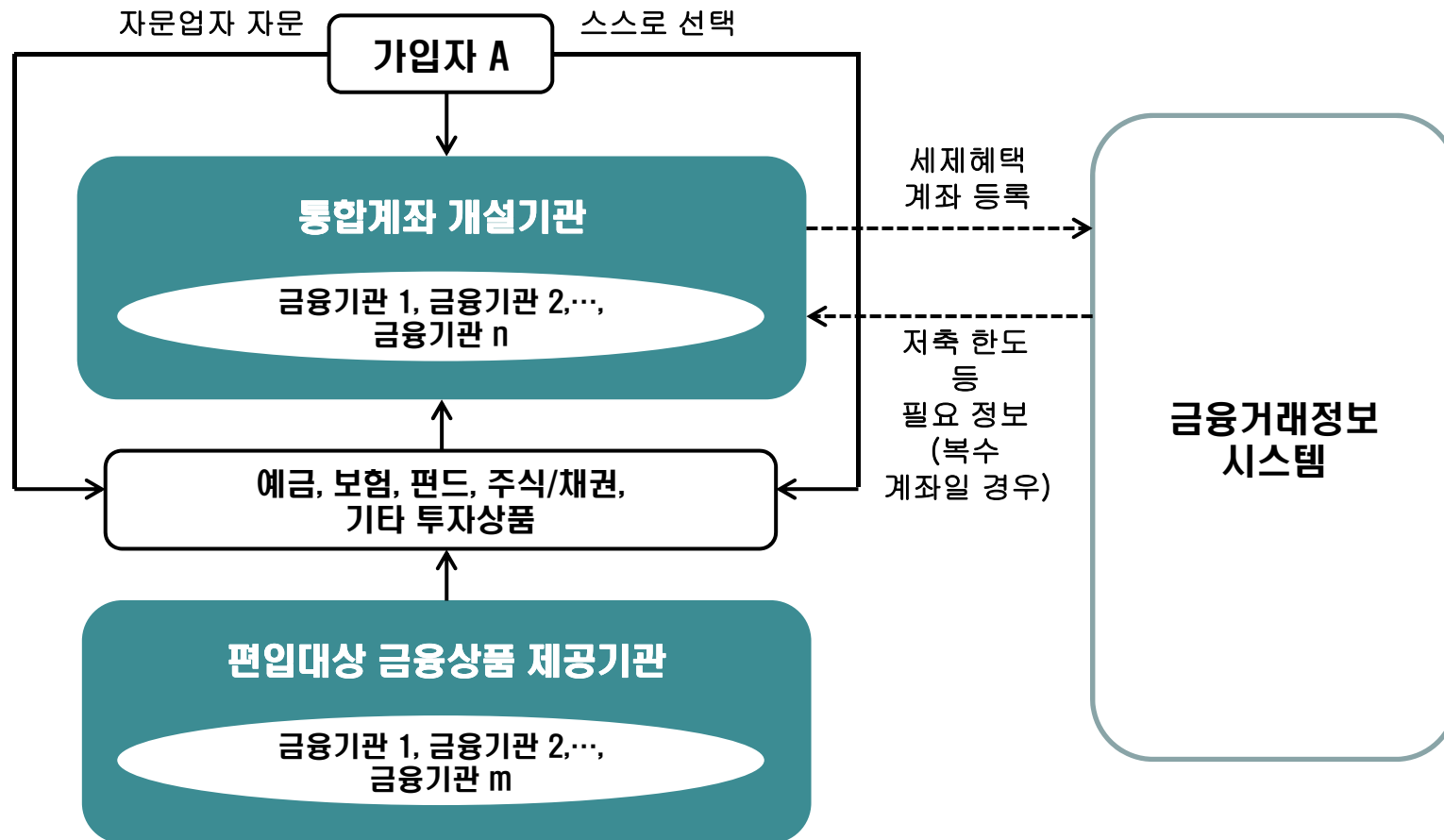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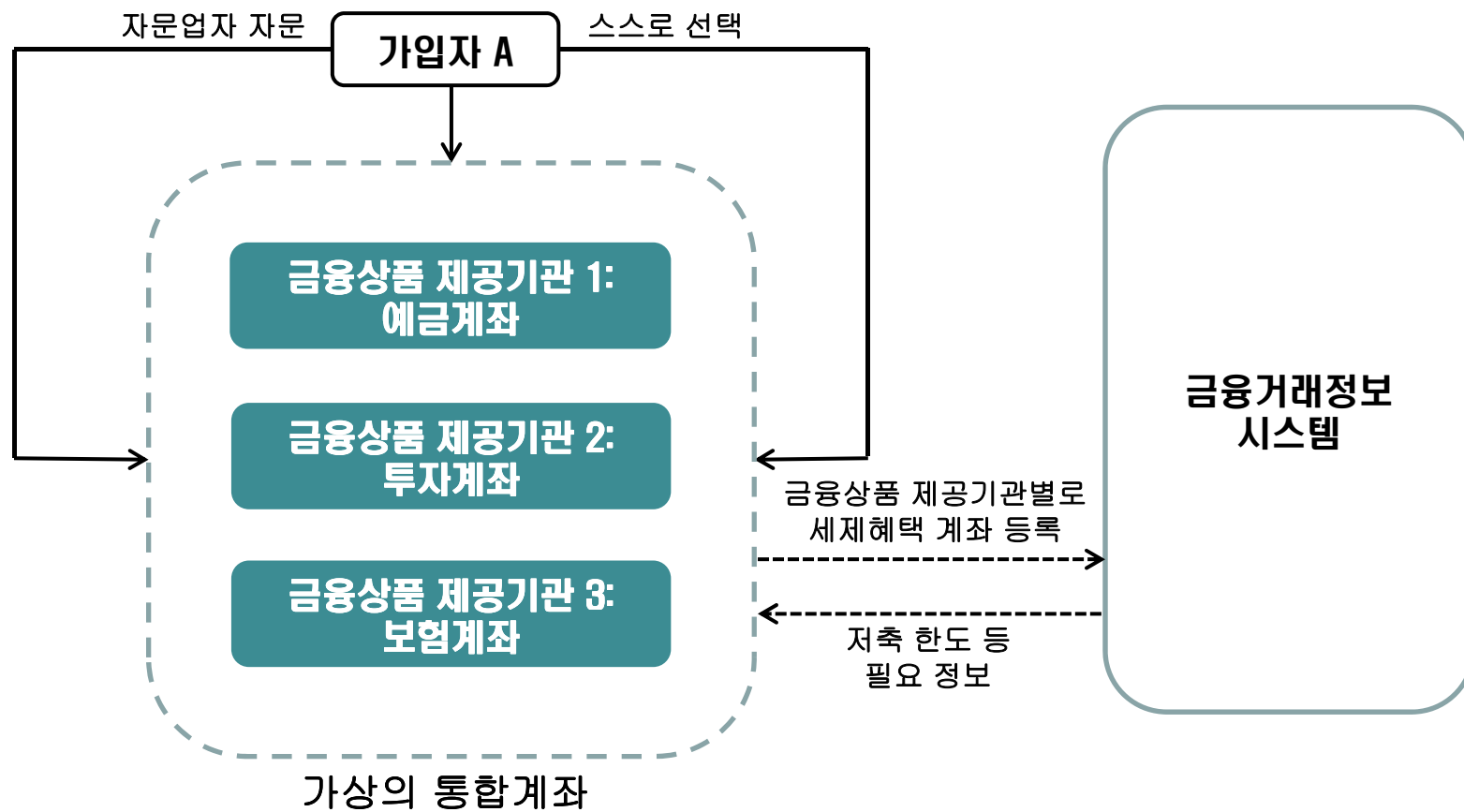
- ❖ 정부는 IWA 또는 한국형 ISA로 지칭되는 세제혜택 통합계좌 도입을 검토
 - 소득정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의 금융자산 축적을 지원
 - 국민들이 생애 전주기에 걸친 장기적인 계획 하에 금융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

- ❖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하나의 통합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구조
 - 선진국 사례: 영국 ISA, 캐나다 TFSA, 일본 NISA
 - 통합계좌의 구조:
 - ① 물리적인 하나의 통합계좌가 존재하는 유형
 - ② 관념적인(conceptual) 통합계좌 유형: 영국 ISA, 캐나다 TFSA

물리적인 하나의 통합계좌



관념적인(conceptual) 통합계좌



KCMI

2.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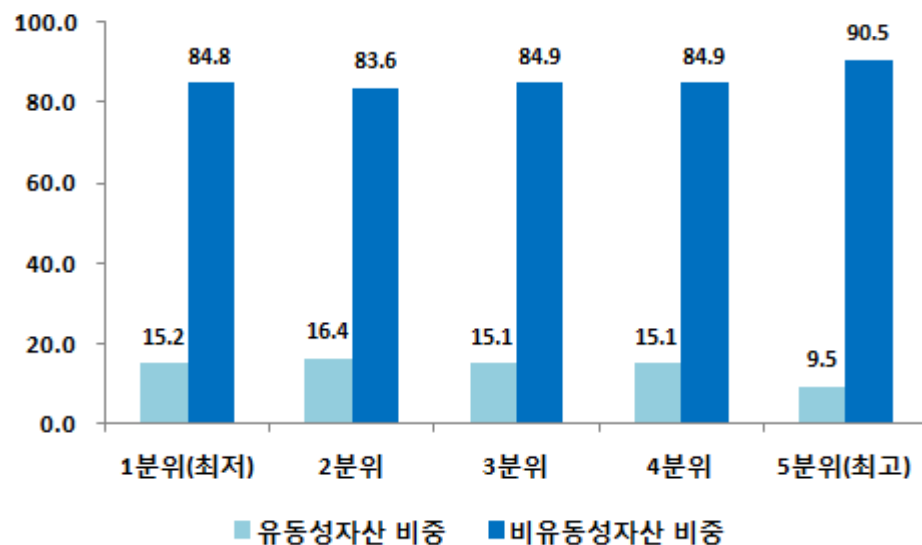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가계 저축·투자 측면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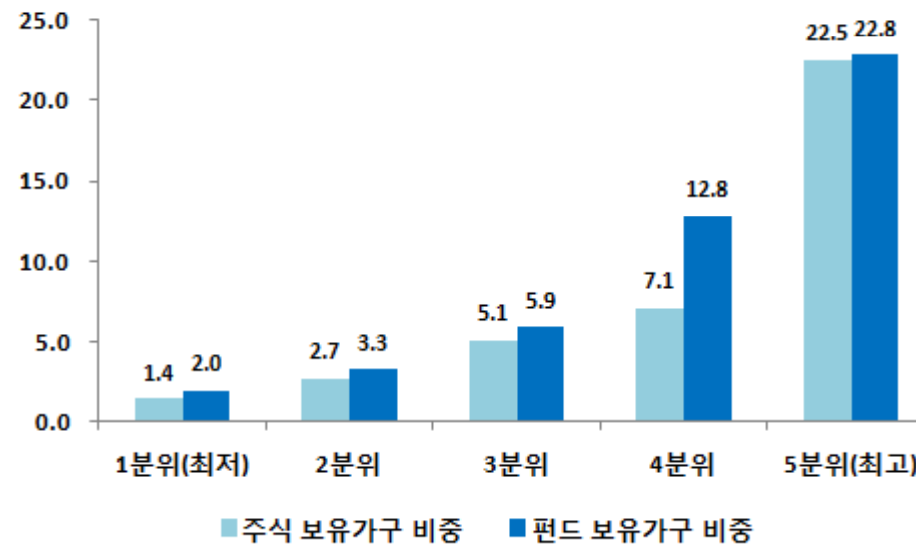
❖ [자산구성 측면] 낮은 유동성자산 비중, 투자성 금융자산 보유 기피

- 가계보유 자산 중 유동성자산 비중이 평균 15% 내외에 불과해 비상상황 대비에 부족
-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는 가구의 비중이 매우 낮아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제고 곤란

소득분위별 유동성자산과
비유동성자산 비중 (2011년, %)



소득분위별 주식 또는 펀드
보유가구 비중 (2011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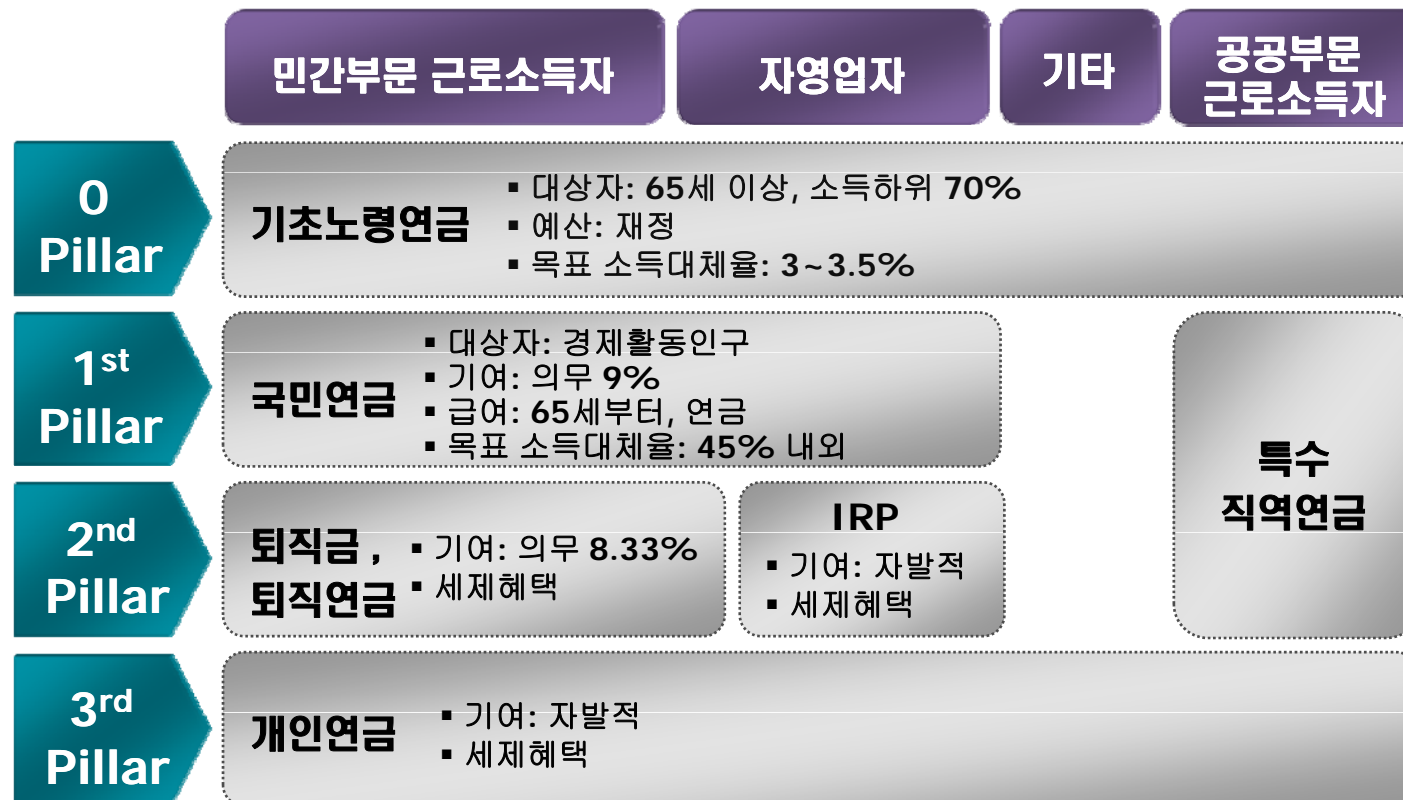
주 : 유동성자산=예적금+채권+주식+펀드, 비유동성자산=저축성/연금성보험+전월세보증금+부동산평가액+기타자산평가액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 5차연도

가계 저축·투자 측면의 문제점

❖ [노후준비 측면] 혜택의 사각지대 상존, 낮은 실질 소득대체율

- 혜택의 사각지대: [예] 공적연금 수급권자 비율 47.9%,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가입률 51.0% 및 15.7%
- 낮은 실질 소득대체율: [예] 국민연금의 경우 급여의 9%를 40년 납부시 45% 내외



가계 저축·투자 측면의 문제점

❖ [기존 세제혜택 금융상품 측면] 국민전체 금융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구조

- 가입자격 제한과 엄격한 인출제약: 중·저소득층 가입이 어려운 구조
- 위험성향이 상이한 다수의 잠재가입자들을 포괄할 수 없는 구조
- 상품별로 상이한 조건
- 가입기간에 제한을 두는 일몰형

도입 필요성

생애주기 저축·투자 플랜 활성화

-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연속성, 선택 가능 상품의 다양성, 상품 교체 및 이전의 탄력성 측면에서 통합계좌 체계가 유리

중·저소득층의 유동성저축 증진

- 중·저소득층에게 자유로운 인출을 허용하도록 설계

도입 필요성

위험성향이 상이한 저축·투자자 포괄

- 각종 다양한 금융상품 편입이 허용되고 유사한 세제 혜택이 부여되므로 모든 잠재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가계보유 금융자산 다변화

- 편입가능 금융자산의 다양성, 자산군간 및 상품간 이동 탄력성, 비교적 용이한 인출조건 등 통합계좌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투자성 금융자산 보유에 유리한 환경

도입 필요성

복잡한 기존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흡수 및 정리

- 가계, 금융기관, 정부 등 시장참여자들의 효율성 제고

부족한
퇴직자산 보완

- 통합계좌 자산을 퇴직시점까지 유지하면 퇴직급여의 일부로 기능

3. 해외 주요국 도입 경험의 시사점



해외 주요국 도입 경험

영국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 비과세 통합계좌의 국제적 벤치마킹 대상이며, 영국 국민들의 유동성저축 증진에 기여

캐나다 TFSA (Tax Free Savings Account)

- 영국의 ISA와 유사한 유동성저축 계좌이며, 연간 저축 한도 등에 탄력성을 부여한 것이 특징

일본 NISA (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 영국의 ISA를 벤치마킹했지만 주식 및 펀드 등 투자성 금융자산만 편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

해외 주요국 도입 경험

해외 주요국 비과세 종합저축투자계좌 요약

	영국 ISA (주니어 ISA 포함)	캐나다 TFSA	일본 NISA
도입시기	1999	2009	2014
도입목적	저축장려 (저소득층 저축장려)	저축장려	금융자산 형성 지원 및 자본시장 활성화
연금성격 유무	X	X	X
비과세 대상	양도차익, 배당이익, 이자소득 (TEE)	양도차익, 배당이익, 이자소득 (TEE)	양도차익, 배당이익 (TEE)
제도적용 기한	없음	없음	5년
대상자	UK 거주자 전체	18세 이상 거주자	20세 이상 거주자
편입가능 자산	부동산 등 실물자산 제외	부동산, 이해상충적 자산 제외	상장주식, 공모주식펀드
연간 저축한도	15,000 파운드	5,500 캐나다 달러	100만엔
인출 및 용도 제한	X	X	X
하위 상품교체의 용이성	높음 (제한 없음)	높음 (제한 없음)	높음 (제한 없음)
계좌발행 금융기관 이전 용이성	현금형/투자형 각 1계좌 (금융기관 이전 가능)	복수 계좌 가능 (금융기관 이전 가능)	1계좌 (금융기관 이전 제한적 가능)
계좌의 성격	신탁, 개별 금융계좌	신탁, 개별 금융계좌	투자계좌

해외 사례의 시사점

- ❖ [관대한 가입요건] 소득의 유무, 소득수준 등의 제한규정 없이 전국민이 가입대상자에 포함
- ❖ [유동성자산 축적] 과세체계, 인출조건 등을 통해 연금성 통합계좌와 구분
 - TEE 과세체계 하에 인출제약이 없는 구조
 - 이를 통해 중·저소득층의 계좌가입을 유도
- ❖ [자본시장 활성화] 가계 금융자산을 투자성 자산으로 유도
 - 자유로운 인출: 강한 인출제약은 중·저소득층의 투자성 금융자산 보유를 제약
 - 계좌 설계 구조에 투자성 금융자산 보유 유도를 내재: 영국 ISA, 일본 NISA
- ❖ [다양성 및 탄력성] 편입가능한 금융자산의 범위가 넓고, 금융기관간 이전 또는 자산군간/상품간 교체가 탄력적 : 일본은 다소 제한적
 - 가입자들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 제공
 - 동종·이종 금융권역 간 공평한 경쟁기회 부여

KCMI

4. 바람직한 방향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도입목적

❖ 서로 상충되는 도입목적들을 통합계좌에 조화롭게 절충시킬 필요

유동성저축 증진:
자유로운 인출

기존 퇴직자산 보완:
강한 인출제약

자본시장 활성화:
인출제약, 투자성 금융자산
유도를 위한 장치

중·저소득층의 유동성저축 증진
+
퇴직자산 보완과 자본시장 활성화도 반영

- 범정부 이슈에 한 가지 목적만 부여하는데 대한 부담
- 제한된 자원(세원)의 효율적 활용
- 세 가지 도입목적 모두 매우 중요한 이슈

검토 사항

- ❖ [가입대상자] 가급적 가입대상자의 범위를 넓게 잡아서 저축·투자 문화 정착의 핵심 역할 수행
- ❖ [기존 세제혜택 상품 정리] 일반적인 저축·투자 증진 목적 상품 흡수
 - 저소득층, 또는 특정계층(농어가, 소기업 등) 지원을 목적으로 한 상품, 퇴직자산 축적을 목적으로 한 상품 등은 기존 체계 유지
 - 일반적인 저축·투자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과 소득분배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상품은 세제혜택 통합계좌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
- ❖ [계좌 편입가능 금융자산] 가급적 넓은 범위의 금융상품이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
 - 위험성향에 의해 잠재가입자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설계
 - 금융권역 간 형평성 고려

검토 사항

❖ [통합계좌의 구조] 관념적인 통합계좌의 개념 차용이 불가피

- 신탁계좌를 포함해 여타 일반 금융계좌(예금계좌, 투자(증권)계좌, 보험계좌)를 가상적으로 통합하는 구조: 영국의 ISA, 캐나다의 TFSA
- 통합계좌 가입자는 자신이 원하는 하위 계좌를 탄력적으로 선택 가능: 복수계좌 가능

물리적 통합계좌: 신탁계좌로 일부 구현 가능

장점

- ① 통합계좌 취지에 가장 잘 부합
- ② 용이한 관리

단점

- ① 예금자보호(예금), 소수주주권(주식) 곤란
- ② 제한적인 통합계좌 개설 금융기관

관념적 통합계좌: 기존의 개별 금융계약을 가상적으로 통합

장점

- ① 계좌 개설 금융기관의 다양성
- ② 현존하는 금융상품 대다수 포괄 가능

단점

- ① 통합계좌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 존재
- ② 관리의 용이성 측면에서 한계 존재

검토 사항

❖ [상품 이전 및 교체] 최대한 탄력성 부여

계좌 개설 금융기관
이전 가능

동일 금융기관 내
상품 교체 가능

탄력성 부여를 위해 연간
저축한도를 소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필요

검토 사항

- ❖ **[세제혜택] 수익에 대한 비과세를 기본으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가미**
 - 주식, 또는 주식형펀드의 경우 계좌 납입원금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없으면 추가적인 혜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
 - 이 경우, 기존의 편향된 가계 금융자산 구조를 바꾸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 ❖ **[인출제약] 투자성 금융자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인출 제약이 불가피하지만, 중·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인출 보장**
 - 인출제약이 강하면 중·저소득층이 통합계좌에 가입하기 어려우며, 가입하더라도 투자성 금융자산을 보유하지 않을 가능성
 - 영국 ISA, 캐나다 TFSA, 일본 NISA: 인출제약 없음 (퇴직계정이 아니라는 가정)
- ❖ **[저축한도] 투자성 금융자산 보유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 연간 저축한도는 영국의 경우 2천만원 내외, 일본의 경우 1천만원 내외 (개인 기준)
 - 현금성 금융자산으로 과도한 편중이 생기지 않도록 현금성 금융자산에 대한 저축한도는 연간 저축한도에 비해 낮게 설정할 필요 (영국 ISA, 일본 NISA 사례)

결론적 제언

❖ 현실적으로 여러 도입목적을 절충한 도입목적을 상정하고, 이를 기초로 계좌를 설계할 것을 권고

➤ 도입목적을 퇴직자산 보완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로 설정할 경우의 한계점

- ① 기존 세제적격 개인연금과의 중복문제
- ② 금융권역 간 형평성 논란
- ③ 중·저소득층 가입제한

➤ 도입목적을 선진국형의 완전한 유동성자산 축적에 둘 경우의 한계점

- ① 세제혜택 상품에 인출제약이 전혀 없는데 대한 비판
- ② 고소득자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데 대한 비판
- ③ 높은 비용

❖ 세제혜택 통합계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추가 조건

- 통합계좌 도입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한 후, 불가피한 문제점은 받아들일 필요
- 독립형투자자자문업자(IFA) 제도의 병행을 통해 자문기능을 강화할 필요



Thank you very much !